

꼭지명 : 월요 철강 시황 리포트 (20.3.23)

1. 철강 시황 이슈 종합 : '수소환원제철'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
2. 주간 철강 시황 분석 종합 : 코로나19 팬데믹 철강 전망...2분기 2차 급락 우려 커짐, 중국 선물시장 '신호'
3. 업계 주요 이슈 포커스 : 철강 가격 단기 전망(WSD), 3월 20일 중국 수출 기준 열연 5~6월 370달러 전망
3월 12일 전망 400달러에서 대폭 하향 조정
4. 업계/수요/경제 주요 뉴스 : 대형 철강사 비상대책 '플랜B' 구상, 설비폐쇄까지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5. 금융의 자료 : 1)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비교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20.03.20)
2) 2020년 2/4분기 수출산업 경기전망 조사 (출처 : 한국무역협회, 20.03.20)
3) 역병 이후 기근에 대비해야 할 때 (출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3.16)

1. 철강 시황 이슈 종합 : '수소환원제철'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

EU가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 온실가스 배출 삭감에 보다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1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탄소세 부과를 주장했다.

'탄소 중립'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및 흡수 활동으로 상쇄, 실질적인 순배출 총량을 '0(Zero)'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EU는 2050년까지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을 만들겠다는 목표와 함께 1조유로(약 1,3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EU의 논리는 외국으로부터 이산화탄소 수입을 늘리게 되면 EU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며 EU의 무역과 근로자들을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탄소 배출량이 높은 수입 제품에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유럽철강협회(EUROFER)와 역내 철강사들 역시 CO₂ 감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도 "철강 부문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큰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이를 이행할 올바른 계획(Framework)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 철강사들은 1990년 이후 탄소배출량을 꾸준히 줄여왔고 2030년에는 현 수준에 비해 약 30%를 추가 감축할 계획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철강협회는 연구개발 및 금융 지원, CO₂ 중립 에너지의 저렴한 공급, 글로벌 경쟁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잘츠기타나 티센크루프와 같은 철강사들은 온실가스 배출 삭감을 위해 '녹색철강(Green Steel)'을 기치로 수소환원제철을 대안으로 연구와 실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티센크루프는 일부 코크스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잘츠기타는 수소 1/3과 천연가스 2/3로 환원하는 공정을 개발 중이다.

특히 이들은 녹색철강(Green Steel)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규제, 재정 지원과 함께 무엇보다 시장을 보장해야만 경제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녹색철강은 기존 제조방식의 철강재보다 30~80%가 비싸다며 '탄소 국경세' 도입으로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에도 환경관세를 허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발전(發電)과 함께 최대 온실가스 배출 산업인 철강에 있어 온실가스 저감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다가왔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는 이미 수소환원제철법 상용화가 현실이 됐다.

일본은 2016년 일본제철이 키미즈제철소에서 시험 조업을 했으며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독일은 20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공법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스웨덴의 SSAB는 2035년까지 3단계 진행을 통해 실증설비 운영을 목표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 철강사들에게 온실가스 저감과 수소환원제철은 초미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의 목표와

실행 계획은 다소 부진하다. 솔직히 2024년 이후의 2단계 사업 착수 여부도 올해 말 이후에나 결정하게 된다.

차제에 보다 전향적인 수소환원제철법 상용화를 위한 우리의 분발과 결단이 요구되고 있으며 ‘탄소 국경세’와 같은 새로운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2. 주간 철강 시황 분석 종합

코로나19 펜데믹 철강 전망…2분기 2차 급락 우려 커짐

철광석·원료탄…철광석 강세 유지에서 하락으로 급전환, 원료탄 상승 유지 중이나 하락 가능성 다분

철강재…쇳물 원가 상승 반면 철강재 가격 하락으로 마진을 급감, 중국 선물시장 2차 급락 ‘신호’

철스크랩(고철)…국제 가격 급락, 국내도 인하 지속, 물동량도 마비가 우려돼 향후 관건될 전망

◆ 코로나19 펜데믹 철강전망

가격 전망 : 2분기 2차 급락

1차 급락 : 코로나19 중국 발발 이후 1월말~2월

→ 중국 열연 수출가격 FOB 500~510달러서 2월 450~460달러

→ 하락폭 50달러

2차 급락 예상 : 코로나19 펜데믹 미국 유럽 동남아 등 확산

→ 3월 초중순 460~470달러 2월 대비 소폭 회복

→ 중국 감염 진정국면, 정부의 경기부양외지 철강시황 회복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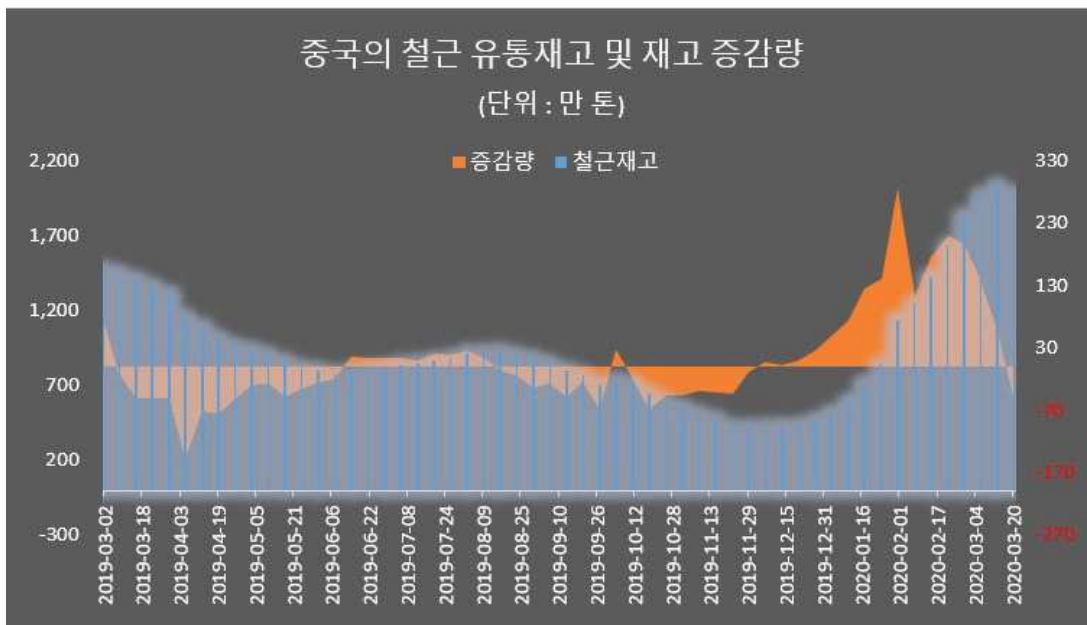
→ 유럽 미국 동남아 등 펜데믹으로 전개

→ 전세계 철강 시장 마비 *미국 빅3 완성차/현대차 엘라바마 등 가동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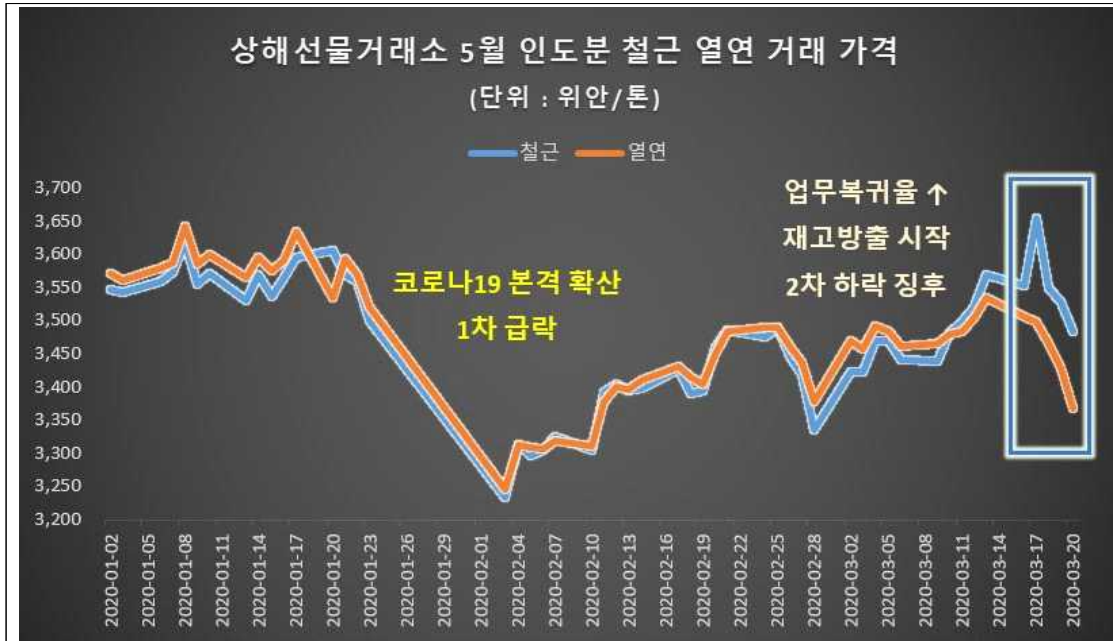
→ 말레이시아 터키 등 철강사 잇달아 가동중단

→ 2분기 열연 수출 가격 FOB 톤당 400달러까지 2차 급락

▶ 중국 3월 중순 이후 철강 재고방출 시작



- 20일 중국 철근 유통 재고 1982만 톤(마이스틸 집계)
- 전주보다 48만 톤 감소. 작년 12월래 16주 만에 감소전환
- 열연 405만 톤 8만 톤↓ 선재(438만 톤) 중후판(141만 톤) 18만 톤, 6만 톤씩 ↓
- 앞으로 재고방출 및 재고조정 국면에서 하락 가능성 ↑
- 선물시장 2차 하락 신호



- ▶ 한국 내수부진에 수출시장 붕괴 압박수위 ↑
 - * 포스코는 올해 1분기 실적이 '쇼크' 수준까지 충격을 받음
 - * 현대제철은 적자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
- 'CONTAGION(감염)' 비상대응체제. A B C 시나리오별 대책마련 검토
- 전체적으로 1분기 적자, 2분기 적자폭 축소, 3분기 회복(손익분기) 목표
- * 전기로 제강사 필리핀 인도네시아 빌릿 수출 제동
 - 환영철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은 필리핀에 1~3월 빌릿 수출을 대폭 늘림.
 - 필리핀 수입업체는 지난주 선적 지연을 요청.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구 인력 부족 배경

(시사점)

- 빌릿 뿐 아니라 다른 철강품목 역시 각 수출지역에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한국 철강사들은 최소 상반기(유럽 미국 등 확산 가속화 등 감안)까지 수출 시장에서 실적하락의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원료공급 제약 심화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지난주 주민 4천만 명에 대해 외출금지 행정명령
- 캘리포니아는 철스크랩(고철) 주요 발생지역. 고철 수집 및 물류 제한 예상
- 앞서 유럽서도 고철 공급 차질 발생.
- 철광석도 차질, 발레 감산발표

→ 향후 가격은 공급차질 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요처인 철강업계의 충격이 심하고, 철강재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철광석 원료탄

총평 : 철광석 가격은 강세 유지에서 지난주 급격한 하락으로 전환됐다. 미국 유럽 등에서 급격히 확산되면서 가동중단 사태가 이어진 것이 배경이다. 특히 유럽 철강사들은 감산, 가동 중단을 결정했고, 향후 철광석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아르셀로미탈은 유럽 지역의 감산을 결정했다. 철광석 수요는 고품위 광석을 중심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의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지만 전세계적인 감염 확산은 원료 가격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반대로 공급 및 중국의 재고 상황은 여의치 않다.

발레(Vale)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지난주 철광석 등의 감산을 발표했다. 중국의 수입 철광석 보유재고도 작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일 중국 45개 항구의 수입산 재고는 1억1800만 톤(마이스틸 집계)이었다. 전주보다 약 400만 톤 감소했다. 작년 12월 1억2700만 톤에서 매월 감소세다.

하지만 철강사들의 가동을 하락과 철강제품 가격 급락이 예상되면서 철광석 역시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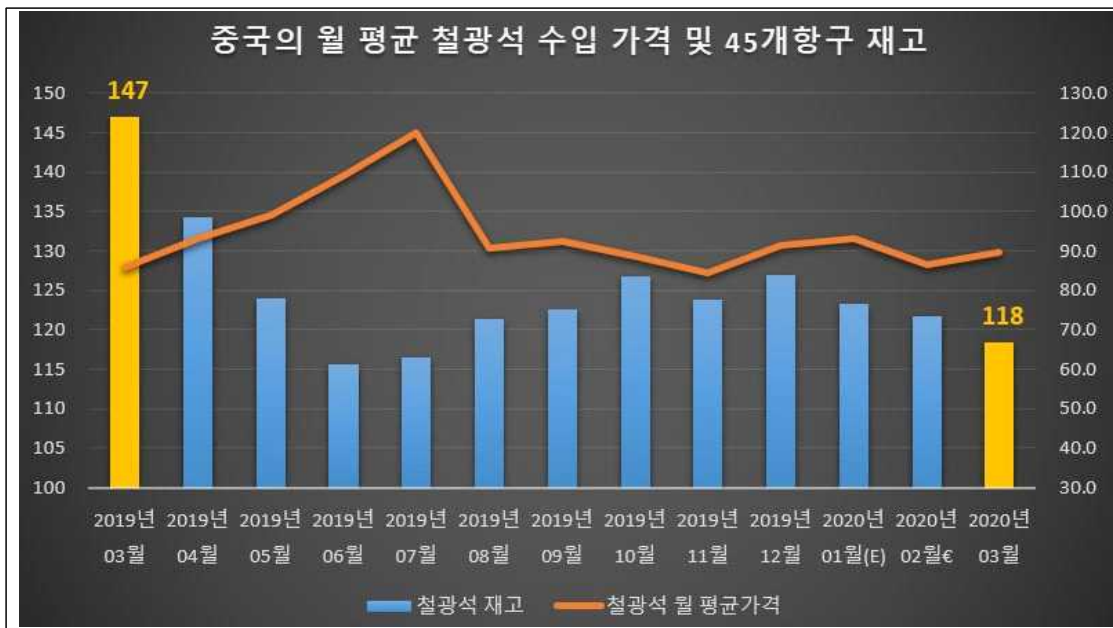
△ 철광석(3월20일 기준)

중국 철광석(Fe62%) 수입 가격 CFR 88.5달러 기록

- 전주(3/13일) 대비 4.7%(4.3달러) 하락
- 전날 19일 대비 3.3% 하락하면서 강세서 약세로 전환

중국의 수입 철광석 보유재고 올해 최저치

- 중국 45개 항구의 수입산 재고 1억1800만 톤(마이스틸 집계)
- 작년 12월 1억2700만 톤에서 3개월 연속 감소
- 작년 3월(1억4700만 톤)보다 2900만 톤 적은 양



△ 원료탄(3월20일 기준)

중국의 강점결탄 수입 가격 CFR 171.8달러

- 전주(3/13) 대비 3.1%(5.2달러) 상승
- 전날 19일 대비 2.2% 상승

* 호주의 공급차질 이슈가 배경. 추후 철광석과 함께 하락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짐

호주의 수출 가격 FOB 162.5달러

- 전주(3/13) 대비 0.3%(0.5달러) 하락
- 전날 19일 대비 0.3% 하락.

△ 대련선물시장 5월 인도분 거래 가격

20일 기준 철광석 661.50위안 기록

- 전주(3/13) 대비 2.2% 하락
- 2월 말 대비 9.7% 상승

△ 일일 쇳물원가(철광석 및 원료탄 배합비 단순산출)

3월 1~20일 평균 280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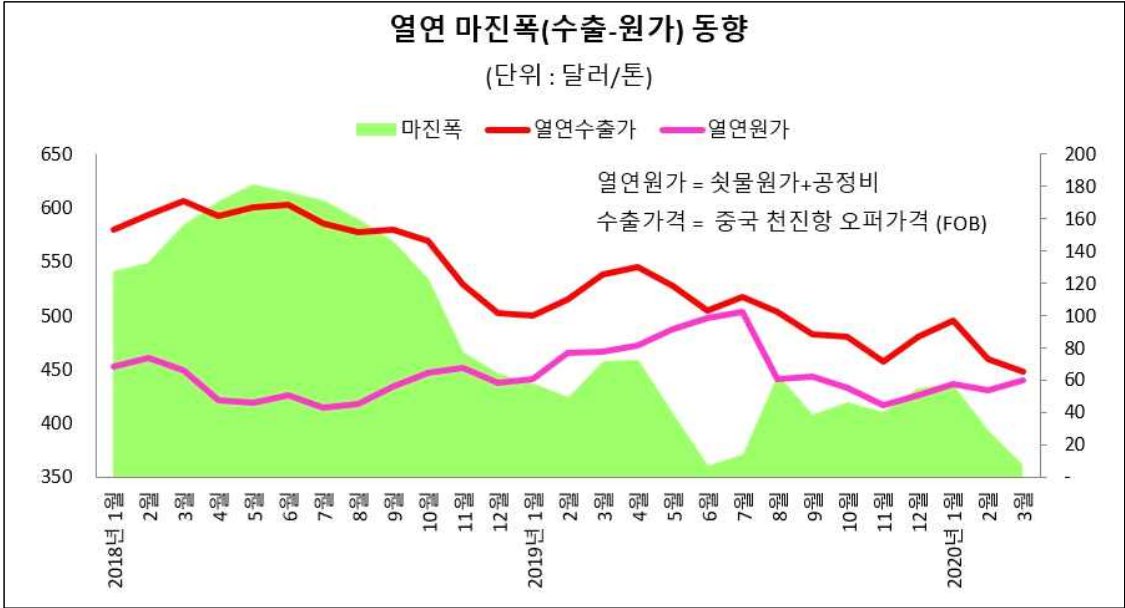
- 전월 대비 3.4% 상승
- 작년 말 대비 5.0% 상승

철강제품

포스코 현대제철 등 고로사 열연 마진폭 손실

쇳물가격 상승 반면 열연가격 하락 : 마진폭 3월 1~20일 평균 8달러

* 작년 3월 72달러/올해 1월 58달러/올해 2월 29달러



총평 : 유통시장은 철강메이커들의 가격 방어로 인해 비교적 강보합세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철근 등 봉형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 열연 등 판재류는 하방압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 현대제철은 적자 상황 탈피를 위해 최대한 감산강도를 높이고 있다. 열연도 어느 정도 방어하고 있다. 하락 압력은 시장 전반에 매우 큰 상황이다. 무엇보다 대리점급 대형 유통의 재고는 3월 중순 이후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매출은 30%가량 급감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소 실수요업체들의 가동률이 좋지 않다. 2차 유통은 재고를 전혀 운영하지 않을 정도로 구매력이 크게 저하돼 있다. 자금경색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 저가 투매는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중국산 등 철강재 수입이 전무할 정도로 위축돼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 증치세 인상(열연 철근 선재 등 10%에서 13%)과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으로 2차 급락 가능성이 높은 실정 이어서 유통 시장에서의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한국 내수 가격

열연

포스코 대응재 기준 63~64만원, 중국산 60~61만원

*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중이나 판매점(현대제철 대리점 등) 대형 유통업체 재고 증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 포스코 현대제철은 4월 가격 동결을 결정. 유통업계도 가격 붕괴를 우려해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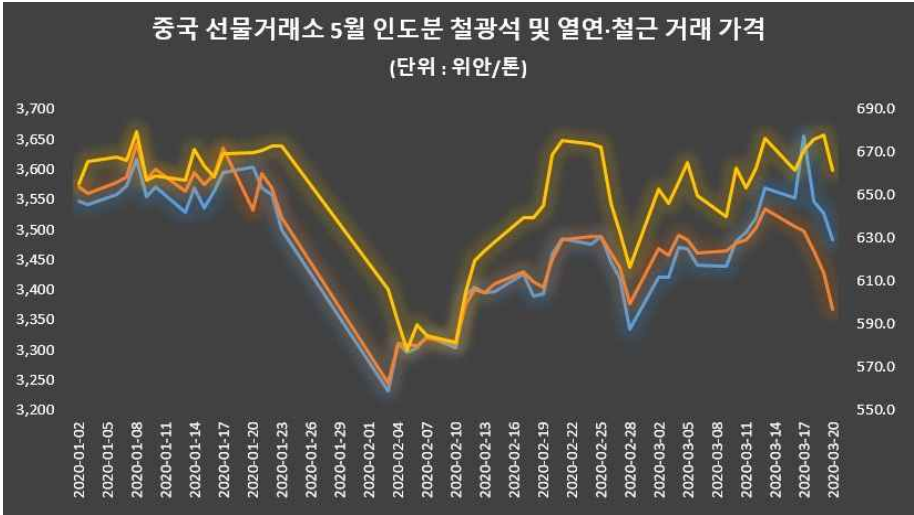
봉형강

철근 : 국산 60~61만원, 중국산 58~59만원

형강 : 국산 79만원, 포스코베트남 76만원, 일본/바레인산 74만원 * 중국산 재고 바닥
 앵글 : 국산 73만원, 수입산 앵글 60만원 채널 62만원

※ 현대제철, 대리점 철근 마감가격 63만 원 고수.
 가동률 제한으로 사이즈별 품귀현상 지속
 출하배차 배정 등 공급제한
 중국산은 환율급등으로 인해 수입업체들의 원가가 높아진 상황.
 코로나19 이후 시장 진정에 따른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일부 시각이 나타나면서 가수요도 발생. 인천부두의 수입산 재고는 8만톤에 미치지 않은 타이트한 상황 지속.

선물시장 2차 급락 신호 : 3월 3주차 철광석 열연 철근 일제히 급락



△ 아시아 수입 및 중국 오퍼 가격 6일 기준

* 플래츠 및 무역상사 종합, 본계강철 오퍼

아시아 수입가격

열연 : CFR 440달러 약세 * 인도산 저가재 하방압력 확대

철근 : CFR 440달러 이하

→ 두 품목 모두 3월 3주 연속 하락세

중국산 오퍼

열연 : FOB 440달러 철근 430달러 냉연 505달러

본계강철의 한국향 오퍼(3월20일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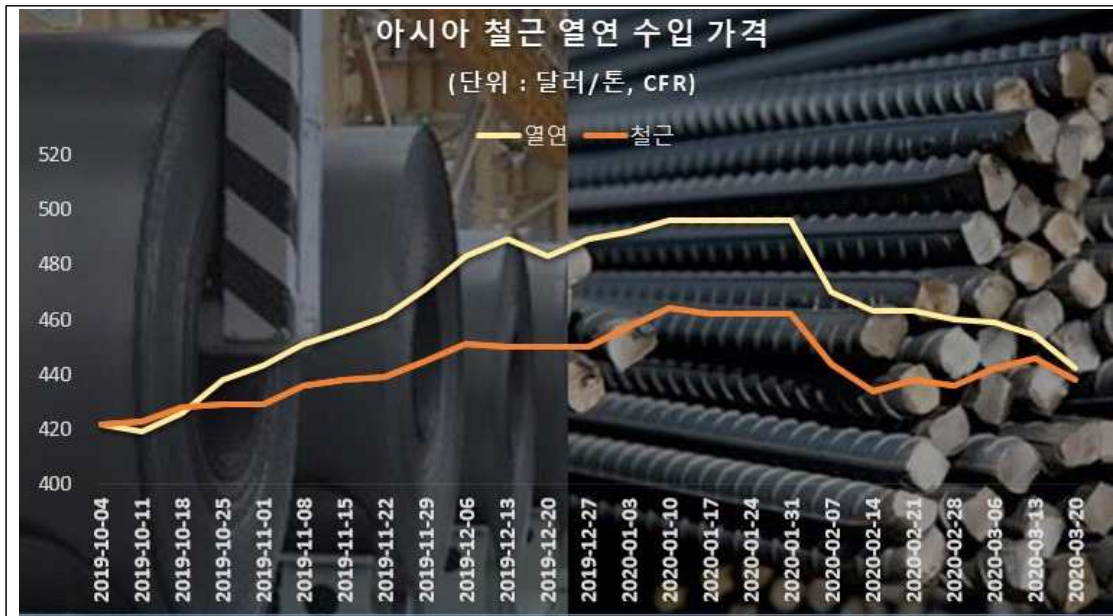
HRC 470FOB = \$483 CFR (\$10하락)

PO 505FOB

ROUND BAR 505FOB,

CRC 515 FOB

GIC 580 FOB = \$593 CFR



(반제품) 슬래브 빌릿 아시아 수입 가격

빌릿 3/20일 기준

아시아 수입 CFR 톤당 395달러 : 3월 하락폭 25달러

흑해 수출 FOB 톤당 355달러 : 3월 하락폭 35달러

슬래브 3/20일 기준

브라질 수출 415달러 : 3월 하락폭 38달러

흑해 수출 370달러 : 3월 하락폭 40달러

철스크랩

총평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터기로부터 연쇄적인 급락이 나타났다. 공급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 일본 등에서 고철 수집활동 및 물동량에 큰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기로 제강사들의 감산과 고철 가격 인하가 이번 주에도 이어진다.

글로벌 지표인 터키의 미국산 HMS No.1&2(8:2) 수입 가격은 톤당 242달러를 기록했다. 일주일 새 30달러 급락했다. 작년 10월(220~230달러) 이후 최저치다. 철근 수출 가격은 FOB 톤당 410달러로 전주보다 10달러 하락했다. 440달러에서 이달 들어 30달러가량 하락했다.

아시아 지역도 하락이 뚜렷했다. 현대제철은 러시아산 A3를 CFR 톤당 247달러에 9만 톤이나 성약했다. 이를 기

준으로 미국 대형모선 수출 가격은 250달러대로 추정된다. 이전 오퍼 가격은 260~270달러대로 평가된다. 일본 H2는 FOB 톤당 2만1000엔대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서 마지막 계약된 가격보다 최소 1000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코로나19는 공급에도 상당한 차질을 줄 전망이다. 하락요인과 반대로 가격을 지지할 배경으로 업계는 지목하고 있다. 미국 대형 고철 공급사들은 수출에는 소극적이다. 급락 상황에서 명확한 포지션을 잡기 어려운 면도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GM 등 '빅3' 완성차 업체는 물론 현대차 앨라바마 공장까지 가동 중단에 들어가면서 발생량도 줄어들 전망이다.

고철 수집 활동에도 큰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대표적인 발생 지역인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민 4000만 명을 대상으로 외출금지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고철 수집 및 물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 미국 대형모선 오퍼가격

- HMS No.1&2(8:2) CFR 250달러 이하 추정
- 터키 수입 가격 241.5달러(플래츠 발표기준), 전주 270달러서 급락

△ 일본 가격

H2 FOB 2만1000엔(FOB)대 계약 가능 범위

△ 한국 가격

구좌업체 A등급 구매 기준

- 생철 26만 원, 중량 25만 원, 경량 23만 원, 선반설 20만 원

LME

부양책 발표에도 투자심리는 계속 위축

(2020. 3.20) 주요국들은 경기 둔화에 따른 불안감에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며 한 주를 마무리함. 중국 정부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하였지만 주요국 경기 부양책 영향을 받으며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하루. 하지만, 유럽 국가와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들이 증가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주요 지수들은 하락폭을 넓히며 한 주를 마감. 또한, 주요 산유국 증산 경쟁 우려 지속 등에 국제 원유 가격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는 계속 위축되는 모습

금일 전기동(Copper) 가격은 3M \$4,741로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하루를 시작함. 2011년 이 후 주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Copper 가격은 세계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지수가 소폭 강세 모습을 보이며 Copper는 3M \$4,938.50까지 상승함. 하지만,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아시아 시장에 상승하던 Copper 가격은 하락폭을 넓히며 3M \$4,610레벨까지 하락함. 알루미늄(Aluminum)은 위험자산 투자심리 위축과 LME 재고가 약 60만톤 증가하면서 가격은 하락폭을 키우고 3M \$1,575까지 하락하며 하루를 마감.

안전자산이 금(Gold) 가격은 코로나 19에 대한 불안감이 글로벌 시장에 크게 작용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하루. 미국과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투자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있음에 따라 금 가격 추가 상승에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Market News

中 상해기화교역소 전기동 재고 급증 흐름 멈춰 (RTRS, BLMBG)

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중국 상해기화교역소(ShFE)의 주간 전기동 재고가 20일 현재 전주 대비 0.7% 감소한 377,247톤으로 나타나 두 달 이상 지속돼 오던 증가세가 일단 멈추는 모습. 이는 제조업체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지속돼 오던 섯다운에서 속속 원상 복귀하는 흐름의 영향이라는 분석. 한편, 알루미늄/아연/납/니켈/주석의 경우에도 각각 전주 대비 +2.8%/-0.9%/-31.9%/-4.6%/-17.3%를 기록해 알루미늄을 제외하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2月 글로벌 알루미늄 생산 6.6% 감소 (RTRS)

IAI(International Aluminium Institute) 자료에 따르면, 2월 글로벌 알루미늄 생산이 전월의 5.447M톤 대비 6.6% 감소한 5.112M톤으로 집계돼. 한편, 중국의 2월 알루미늄 생산은 전월의 3.076M톤 대비 6.4% 감소한 2.879M톤으로 추산돼.

中 Hongqiao그룹 작년 순익 12.7% 증가 (RTRS)

회사 발표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중국 Hongqiao그룹은 알루미늄 생산량 감소(전년 대비 11.3% 감소한 5.644M톤)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에 힘입어 작년 순익(net profit)이 전년 대비 12.7% 증가를 기록했다고.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알루미늄 공급망은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a profound impact on global supply chains)이라고 경고하기도

LME 비철금속 OFFICIAL Prices

(단위: USD/Metric Tons)

	금일		금일평균		전월평균	
	CASH (현물)	3M (3개월)	CASH	3M	CASH	3M
	BID	ASK	BID	ASK		
Copper	4,854.00	4,855.50	4,866.00	4,868.00	5,377.37	5,392.23
Aluminum	1,580.00	1,580.50	1,603.00	1,605.00	1,658.10	1,676.60
Zinc	1,879.00	1,880.00	1,890.00	1,891.00	1,941.97	1,958.43
Lead	1,672.50	1,673.50	1,685.00	1,687.00	1,787.50	1,775.13
Nickel	11,365.00	11,370.00	11,425.00	11,450.00	12,196.00	12,260.33
Tin	14,475.00	14,500.00	14,475.00	14,525.00	15,915.33	15,931.00

자료: Reuters,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

LME 비철금속 Evening Valuation (종가)

(단위: USD/Metric Tons)

	CASH	3MTHS	APR20	MAY20	JUN20	JUL20	AUG20	SEP20
Copper	4,805.25	4,810.00	4,802.25	4,808.25	4,813.75	4,818.75	4,825.50	4,832.00
Aluminum	1,558.75	1,582.00	1,571.75	1,578.25	1,582.50	1,587.50	1,595.50	1,602.50
Zinc	1,845.00	1,848.00	1,845.50	1,849.00	1,850.00	1,850.25	1,852.75	1,856.75
Lead	1,643.25	1,659.00	1,653.25	1,660.25	1,661.00	1,661.75	1,663.75	1,666.25
Nickel	11,155.00	11,225.00	11,180.00	11,203.00	11,225.00	11,241.00	11,260.00	11,282.00
Tin	13,980.00	13,950.00	13,975.00	13,960.00	13,955.00	13,945.00	13,937.00	13,931.00

자료: Reuters,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

LME 비철금속 재고

(단위: Metric Tons)

	금일 재고동향			재고 상세내역		
	전일 재고	입고 (IN)	출고 (OUT)	금일 재고	전일 대비	ON WRT
						C&L WRT
Copper	231,025	0	3,150	227,875	-3,150	183,175
Aluminum	1,009,100	65,175	4,350	1,069,925	60,825	904,650
Zinc	73,700	0	500	73,200	-500	56,150
Lead	70,950	150	100	71,000	50	55,925
Nickel	230,760	0	36	230,724	-36	168,882
Tin	6,550	0	160	6,390	-160	5,410

자료: REUTERS,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 정보 (3.23 기준)

품목	거래소	인도월	단위	가격	등락폭	등락율	주기
두바이유	싱가포르 (FOB)	현물	USD/bbl	24.6	▼5.07	-14.2	일간
액화천연가스	한국수입가 (CIF)	현물	USD/ton	444.67	▼26.42	-5.41	월간
고철 생철	한국서울 (도매가)	현물	KRW/ton	250,000.00	▼10,000	-3.85	월간
철광석 Fines	중국 수입가 (CFR)	현물	USD/ton	81.07	▼7.91	-7.85	일간
열연코일 3.0x4x8mm	한국(도매가)	현물	KRW/ton	713,200.00	-	-	월간
제철용 원료탄 Hard	동호주항구 (FOB)	현물	USD/ton	159.43	▼2.22	-0.76	일간
전기동	LME	현물	USD/ton	4,617.50	▼238.5	-4.89	일간
알루미늄	LME	현물	USD/ton	1,536.00	▼45.5	-2.82	일간
니켈	LME	현물	USD/ton	11,055.00	▼315	-2.77	일간
아연	LME	현물	USD/ton	1,814.00	▼66	-3.51	일간
납	LME	현물	USD/ton	1,608.50	▼65	-3.88	일간

3. 업계 주요 이슈 포커스 (글로벌 시장 이슈)

WSD 가격 전망 (3.20 기준)

WSD는 3월20일 리포트에서 열연 가격은 중국 수출 기준으로 5~6월 FOB 370달러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85%로 예측. 앞서 3월12일 리포트에서 65%로 가능성을 높게 본 400달러에서 하향 조정. 철광석은 55달러, 원료탄은 호주 수출 기준으로 120달러까지 예상.

철스크랩 가격은 터키의 미국산 HMS No.1&2(8:2) 기준으로 190달러까지 전망.

WSD 가격 전망										
단위 : 달러/톤										
품목	구분	2019년				2020년				
		1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5~6월	
									85%	5%
열연강판	World export market (FOB)	480	400	450	470	505	460	465	380	460
	China export (FOB)	465	435	460	462	505	453	451	370	440
반제품	빌릿 (FOB Black Sea)	408	340	370	410	407	395	389	305	410
	슬래브 (FOB Black Sea)	405	350	360	385	400	410	413	305	410
철광석 원료탄	Iron Ore sinter feed (to China)	76	87	89	94	96	92	91	55	95
	Coking coal spot (FOB Australia)	194	150	134	138	152	160	162	120	160
철스크랩(고철)	80/20 HMS to Turkey	287	247	266	300	285	280	273	190	280

<주장의 배경>

철강은 수요산업 활동에 전적으로 의존, 현재 팬데믹으로 변진 코로나19 충격으로 전세계 철강 생산 수요가 줄어 들 것으로 전망

* 2020년 조강생산량 예측

- 전세계 16억6000만 톤 전망. 전년 대비 11.4% 감소
- 중국 9억7500만 톤 전망. 전년 대비 7.1% 감소
- 선진국 4억2000만 톤 전망. 전년 대비 20.3% 감소
- 개발도상국 4억1100만 톤 전망. 전년 대비 11.7% 감소

4. 업계/수요/경제 주요 뉴스

1) 업계 뉴스

- 대형 철강사 비상대책 ‘플랜B’ 구상…설비폐쇄까지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 철강재 전과정평가(LCA) 국내 표준 KS D ISO 20915 3월 20일 제정·고시
- 포스코·현대제철 1분기 실적 쇼크 우려…원가 상승 불구 철강재 가격 급락 영향
- 철근 가격 강세…환율 급등, 가수요, 감소 등 영향
- 한국특수형강 최대주주 KSS홀딩스 주식 매각 계약, 매수자는 미확인
- 포스코 및 5개 상장계열사 임원진 자사주 매입 ‘주가 폭락 방어’
- 동국제강 자사 브랜드 제품 정보 제공 모바일 앱 ‘디프로덕트(D’product)’ 개발
- 포스코강판, 미얀마 포스코법인 합병 ‘고급재 컬러강판 시장 석권’ 목표
- 현대제철 日 고철 H2 2만1천엔 성약, 종전 대비 1천엔 하락
- 포스코·현대제철 인도SSC 31일까지 가동 중단 결정, 코로나19 영향
- 해외 : 아시아 열연 철근 가격 3주째 하락, 中 증치세 환급세율 인상 영향(?)
US스틸 고로 48일간 가동 중단 결정, 유럽 감소 미국으로 확산
아르셀로미탈 북미 2개 고로 가동 중단, 수요 감소로 인한 손실 최소화 방안
일본무역보험(NEXI) 해외 투자 무역 손실 업체 지원키로
日 산양특수제강, 차세대형 열교환기용 내열강 개발
中 철강재 재고 방출 시작, 철근 등 주요 품목 16주 만 감소 전환, ‘2차 하락 전조?’
철광석 가격 일주일새 5% 하락 최근 낙폭 확대 20일 중국 86.5달러, 3월 중 ‘최저’
철스크랩(고철) 가격 글로벌 가격 연쇄적 붕괴 대 물동량 마비 등 ‘등락요인 교차’

2) 수요/연관 뉴스

- 브라질 12개 자동차사 일제히 ‘셧다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브라질 정부 권고로
- 日 도요타자동차 코로나19 확진자 연속 발생으로 생산라인 정지
- 현대미포조선, 2019년 매출 2조9941억원, 영업이익 296억원 달성
- 미국 40년 만에 원유 감소 검토, OPEC과 논의 중
- 공장 가동 중단 미국·독일 자동차 업계, 의료물자·장비 생산·지원

- 현대건설, 신용산역 북측2구역 도환 사업 30307억원 수주
- 현대로템, GTX-A노선 전동차 120량 수주
- 한국공작기계 위장 판산 여부 두고 '대립'
- 국토부, '노후 산단 내 공장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 현대삼호중공업, 조선 품질 전문가 파견 협력사와 상생
- 현대위아, 美·유럽서 차 핵심부품 7000억 수주

3) 경제/산업 뉴스

- 23일 환율 마감 : 원/달러 1266.50원 (전일 대비 ↑20.0원) 원/100엔 1154.56원 (↑19.57원)
- 미국, 여행경보 최고등급 4단계…전 세계 여행 금지
- 정부 코로나19 발 신용경색 막는다…금융 48조·민생 51조 투입
- 국제금융협회(II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0.4 → -1.5%로 하향 조정
- 3월 하루 평균 수출 0.4% 줄어…자동차 13% 급감, 생산·내수도 타격
- 美 상원, 1조달러 경기부양법안 부결, 연준은 유동성 공급 무한대로 확대, 회사채도 매입
- 中 정부 경기부양 적극…기업·가계 대출에 323조원 풀었다
- 한국은행, 美 연준과 600억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 체결, 금융위기 후 두 번째
- JP모건, 올 한국 성장률 1.9 → 0.8%로 하향 조정…코로나19 이후 1.5%p ↓
- 피치,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 2.5% → 1.3% ‘대폭 하향’
- 주요 경제지표 (3.23. 17시30분 현재, 자료 : 기획재정부)

[illegible]

5. 금주의 자료

1)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비교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20.03.20)

- 코로나19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등.
 - '공포지수'라고도 알려져 있는 VIX(Volatility Index, 변동성지수)는 2020년 3월 16일 현재 1990년 이후 최고인 82.7p를 기록하여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도에 달하고 있음을 의미
 - 이에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과거 4차례의 경제 위기 당시와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 *. 바로가기 : <http://www.hri.co.kr/board/reportView.asp>

2) 2020년 2/4분기 수출산업 경기전망 조사 (출처 : 한국무역협회, 20.03.20)

- 2020년 2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79.0으로 2013년 이후 7년 만에 80 이하를 기록, 1분기 대비 수출은 매우 부진할 전망
 - 이에 수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및 유관 기관의 정책 공조가 절실함.
- *. 바로가기 :

<https://www.kita.net/cmmrcInfo/rsrchReprt/rsrchReprt/rsrchReprtDetail.do?pageIndex=1&no=2046&classification=1>

3) 역병 이후 기근에 대비해야 할 때 (출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3.16)

- 최근 들어 과거 대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이 기업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
 - 전염병 외 기후 변화도 또 하나의 커다란 리스크 요인으로 이로 인해 최근 호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동아프리카에0 메뚜기 떼가 창궐, 큰 피해를 주고 있음.
 - 이러한 전염병과 기후 변화로 단기간 내 식량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역병과 기근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 바로가기 : <http://www.hanaif.re.kr/kor/jsp/board/board.jsp?sa=ci&bid=177&no=34322>